공동체의식에 따른 코하우징 선호도

Preference of Cohousing according to sense of Community

곽유미* 조정현* 홍서정* 곽인숙** 최정신***

Kwak, Yumi Cho, Jeonghyun Hong, Seo Jung Kwak, Insook Choi, Jung Sin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fluence on preference of cohousing (eg. intention to spread and intention to move in cohousing) according to sense of community by married people residing in Seoul and its outskirts. Research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a social survey. Respondents were 214 people by accidential sampl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program using frequency, mean, average,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ough respondents took part in interaction meetings rarely, they took part more often in meetings for health issue, leisure and hobby. Members of meetings were mostly job colleagues.
2) The respondents were interested in meetings for exchange of used stuffs, and children and the youth program most. It was revealed that the group taking part in meetings more often have higher sense of community than others.
3) Respondents who were older, who have been living longer in the same town had higher sense of community as well as closer interaction with neighbors than others.
4) As respondents showed positive response about preference of cohousing,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intention to spread and intention to move in cohousing. While women, more educated, less income, and higher sense of community groups showed higher intention to spread cohousing, home owner and higher sense of community groups showed higher intention to move in cohousing.

Keywords : Sense of community. Frequency of taking part in interaction meeting. Intention to spread cohousing. Intention to move in cohousing.

주 요 어 : 공동체 의식, 교류모임 참여정도, 코하우징 보급의사, 코하우징 입주의사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른 주거의 선택 및 선호도 또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이상적인 주거 형태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거 선택에 있어서는 생활의 편리성, 경제성, 독립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라는 주거는 정형화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대량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개별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파트 생활은 사생활보호를 우선시하고 익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시인들은 '우리'보다 '나'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이 잔재되어 이웃에 대해 관심을 쏟고, 동네 일에 참여할 만큼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생활환경에 따라 잦은 주거 이동을 보이고 있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적 의식을 더욱 약화시킨다. 현대 도시인들을 서로 간섭하기도 간섭받기도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삭막한 현실에서 벗어나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고 생활의 지혜를 나누며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생활의 모든 영역을 공유하는 전통적인 공동체 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면서 자신이 원할 때만 교류하는 선택적인 사회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들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규모, 관리 및 공동생활의 방법에 따라 코하우징(Cohousing), Shared housing, Collective Housing 등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고 있다. 이 주거형태들은 주민들의 참여과정과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키는 공간설계, 개별주거를 보완하는 공동생활시설의 확대, 그리고 주민의 자주적인 참여와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며[1], 다른 가족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도적으로 일정한 지역적 공간테두리 속에서 구성원들끼리 상호접촉하면서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생활하는 공동체 마을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입시교육제도 반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안솔기 마을, 귀농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진도리 마을,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 공동체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정주형태를 띤 공동체 마을은 자연발생적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상호접촉의 기회가 높고 공동의 이

*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주거학전공 박사과정

**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노인주택전공 교수

***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주거학전공 교수

1) 이경희(2000), 공동주택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38(2)

해관계를 통해 공동체 삶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이 마을들은 구성원들의 주거공간과 노동 조건 등 삶의 자족적 시스템이 새롭게 창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 전통 양식과 자연의 생태적인 원리를 응용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마을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변화되는 주거환경 속에서 전통적 의미의 자연스러운 공동생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즉, 도시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일정한 물리적 공간 속에서 '의도화된'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결속감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에 사는 기혼 남녀들이 어떠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촌락공동체의 성격을 띤 코하우징의 선호도(도입의사, 입주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코하우징이 보급 될 경우 성공적인 정주화를 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정의

(1) 공동체 의식

류경희(2001)의 연구에서는 공동체란 지역성과 스스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 공동관심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호관계를 통하여 공동의 유대와 구체적인 삶과 문화를 형성해 가는 혈연, 비혈연의 핵가족들과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2]. 또한 근린활동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많은 이웃들과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빈번한 상호작용을 할 때 이웃간의 친밀성이 증가하며[3], 주민들간의 접촉은 공동체 의식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4].

도시에서 시도되는 공동체들의 성격은 공동체 요소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 어렵지만, 지역성, 이념·가치에 대한 지향성, 결속력 정도[5]에 따라 아파트 공동체,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공동체, 생태공동체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을 재구성하여 공동체 의식 요소를 공동체적 삶에 대한 관심도, 이웃 주민들과의 친밀감 정도, 교류모임의 필요성, 이웃관계 형성의 동기, 이상적인 이웃관계의 필요성, 이웃 교제의 장애요소 등으로 살펴보았다.

(2) 코하우징

코하우징은 어린이 돌보기, 일손 돕기 등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근거하여 이웃의 역할 회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의 축소 및 이웃생활을 확대하는 새로운 조화 방식을 절충하고 있다. 즉, 개별가정의 독립된 가정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웃간에는 친근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서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라는 상보적인 두 개념의 조화를 지향한다[6]. 그러므로 코하우징의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의 핵심은 공동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택들을 배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물리적 공간을 통해 주민들이 상호접촉의 기회를 높이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통해 결속력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결속력은 주민들이 마을 기획, 디자인 과정, 설립까지 직접 참여하고 주민자치 관리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본 연구에서 코하우징이란 개인생활을 중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형식으로 동일한 지리적, 물리적 공간 속에서 공동생활의 역할을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서 주민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의도화된 공동체 마을을 의미한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인천, 부천, 수원, 안산)에 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교류모임 특성, 공동체 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공동체 의식은 일반적인 특성, 주거환경특성, 교류모임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교류모임특성 중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교류모임 특성, 공동체 의식 중 코하우징 선호도(코하우징 보급의사, 코하우징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자료수집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에 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도구의 내용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예비조사(2006년 4월 17일 ~ 4월 23일)와 실증분석을 위한 본 조사(2006년 5월 1일 ~ 5월 31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부하여 237부(94.8%)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내용기제가 부실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총 214부(85.6%)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7]를 고찰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거환경특성을 묻는 문항, 현재 참여하는 교류모임 정도 등에 대해 묻는 교류모임 특성에 대한 문항,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코하우징의 선호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38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38개 문항은 내적 일관성 점수인 Cronbach's Alpha계수가 .889로 나와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주거환경 특성, 교류모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공동체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코하우징 선호도(코하우징 도입의사,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

2) 류경희(2001),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과정, 대한가정학회 39(3)

3) 우룡(1995), 개인의 의지와 지역공동체 의식간의 관계분석, 지역사회개발학회지 제5권

4) 이경희·채혜원(2004), 초고층 건물거주자의 지역공동체의식과 근린활동, 한국주거학회 22(3)

5) 신명호 외(2000),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연구 제6호

6) 신용재(2001), Cohousing에서 추구하는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1)

7)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 한주희(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서정(2005),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 계획,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경(2001), 한국의 노인용 코하우징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민정(2005), 코하우징 개념을 적용한 도시근교 주거단지의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재순·곽인숙(2005),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상복합주거의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 한국주거학회지 16(6)

성, 주거환경특성, 교류모임 특성, 공동체 의식에 대한 상관관계,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가족생활주기 등을 알아보았다.

조상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3%, 여자가 57%이며 연령은 40대가 40.7%로 평균연령은 43세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69.2%로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기술 및 경영관리직이 31.6%, 사무직이18.9%, 상공자영업 및 판매서비스직이 17.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은 평균443만원 정도로 전가구별 월평균소득이 3,056,825원(2006년 2분기 통계청[8] 자료)임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전가구별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무직, 상공자영업 및 판매서비스직 등 타 직종보다 전문기술 및 경영관리직이 많이 표집되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생활주기[9]는 가족축소기가 40.7%, 자녀교육기가 33.6%, 가족형성기가 25.7% 순으로 표집 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성별	남성	92(43.0)
	여성	122(57.0)
	계	214(100.0)
연령 (평균 43.48세)	39세이하	76(35.5)
	40세-49세	87(40.7)
	50세이상	51(23.8)
	계	214(100.0)
학력	고졸이하	65(30.8)
	대졸이상	146(69.2)
	계	211(100.0)
직업	전문기술, 경영관리직	67(31.6)
	사무직	40(18.9)
	상공자영, 판매서비스직	37(17.5)
	자유업, 기능직, 노무직	34(16.0)
	전업주부	34(16.0)
	계	212(100.0)
월평균 가계소득 (평균 443.32만원)	100만원-300만원	64(30.3)
	301만원-500만원	92(43.6)
	501만원-1000만원	55(26.1)
	계	211(100.0)
가족생활주기	가족형성기 및 확대기	55(25.7)
	자녀교육기	72(33.6)
	가족축소기	87(40.7)
	계	214(100.0)

*빈도의 차이는 결측치에 의한 오차임.

2.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특성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조사대상자의 현재 주거환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역, 주택규모,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거주기간 등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서울이 55.6%, 서울 외(인천, 부천, 수원, 안산)지역이 44.4%로 고르게 표집 되었다.

8) http://www.nso.go.kr

9) 가족생활주기의 분류는 유영주 · 홍형옥(1982)의 가족생활주기 5단계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를 가족 형성기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기간을 자녀교육기로, 자녀가 독립하거나 군입대, 결혼 등으로 인해 가족수가 줄어드는 시기와 노년기를 가족축소기로 구분하여 3단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특성

구 분		N(%)
거주 지역	서울근교	94(44.4)
	서울	119(55.6)
	계	214(100.0)
주택 유형	고층아파트	115(53.7)
	연립주택, 다세대	67(31.3)
	단독주택	32(15.0)
	계	214(100.0)
주택 소유 형태	임차	71(33.2)
	자가	143(66.8)
	계	214(100.0)
주택 규모 (평균=30.61평) 전용면적기준	7-20평 미만	22(10.4)
	20-30평 미만	74(34.9)
	30-40평 미만	84(39.6)
	40평 이상	32(15.1)
	계	212(100.0)
거주 기간 (평균 5년 3개월)	3년 미만	80(38.5)
	3년 이상-5년 미만	39(18.8)
	5년 이상-10년 미만	45(21.6)
	10년 이상	44(21.2)
	계	208(100.0)

*빈도의 차이는 결측치에 의한 오차임.

주택유형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분류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3.7%인데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이는 오늘날 주택공급의 형태가 아파트를 위주로 공급되며,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유형태는 대부분 자가 소유(66.8%)로 나타났다. 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는 30-40평 미만(39.6%)과, 20-30평 미만(34.9%) 순 으로 많았으며,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5년 3개월로, 실제 조사대상자가 현 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42.8%로 높았다. 그에 반해 3년 미만 거주하는 경우는 38.5%로 우리나라의 전세 계약이 2년을 기본으로 계약되는 현상을 보아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2년을 주기로 주거를 이동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3. 조사대상자의 교류모임 특성

조사대상자가 교류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는 1.98점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조사대상자들의 69.6%가 교류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처럼 교류모임의 낮은 참여율은 '시간이 없어서' 이웃과의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표 5)와 같은 경우로 바쁜 현대인의 생활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교류모임 특성

구 분		N (%)
교류모임에 참여하는 비율	상	60(28.0)
	중	89(41.6)
	하	65(30.4)
	계	214(100.0)
현재 참여 중인 모임의 구성원	직장동료	61(28.9)
	동창	39(18.5)
	가족 및 친인척	37(17.5)
	동네 및 지역사회	33(15.6)
	종교단체	18(8.5)
	기타동호회	15(7.1)
	학부형	8(3.8)
	계	211(100.0)

*빈도의 차이는 결측치에 의한 오차임.

교류 모임의 구성원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동료(28.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창(18.5%), 가족 및 친인척

(17.5%), 동네 및 지역사회(1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교류모임은 사회활동에 따라 잦은 접촉을 하는 직장동료 등에서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교류모임의 종류는 건강관련 강좌, 운동동호회 등 건강지원과 관련된 모임(2.50점)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문화, 여가 및 취미활동(2.43점), 주민교류 및 친목도모(2.37점) 순으로 나타났다(표3-1).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43세임 것을 감안할 때,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는 나이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 조사대상자의 교류모임 특성

구 분		M (SD)
참여하는 교류모임 종류	건강지원 및 스포츠 (건강관련강좌, 운동동호회 등)	2.50(1.31)
	문화여가 및 취미 (문화강좌, 취미활동 등)	2.43(1.16)
	주민 교류 및 친목 (활동 중심의 노인교실, 차마시는 모임)	2.37(1.28)
	교양 및 교육 (일반성인, 교양강좌, 어린이육아, 놀이모임 등)	2.25(1.14)
	생활지원 및 복지 (봉사활동, 부녀회, 반상회 등)	2.19(1.17)

4. 공동체에 대한 의식

1) 조사대상자의 공동체 의식

조사대상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기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3.23점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아파트 단지)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견해도 2.98점으로 낮게 조사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의 필요성'은 3.68점으로 높은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

(표 4)에서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는 조사대상자들이 '가벼운 인사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54.7%로 나타났으며, '인사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은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29%로 조사되었다. 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는 등 가족같이 지내는 경우'는 7.9%로 조사대상자들의 생활패턴이 공동체 생활보다 개인생활을 위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4. 공동체 삶의 관심도, 필요성, 동네 소속감 여부,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

구 분		N (%)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에 대한 관심		3.23(.83)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의 필요성		3.68(.66)
현재 살고 있는 동네(아파트단지)에서의 소속감		2.98(.81)
구 분		M (SD)
친밀감정도	인사정도는 나누지만 그 이상 부담스러움	62(29.0)
	가벼운 인사나 간단한 대화를 나눔	117(54.7)
	쇼핑,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함	18(8.4)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움	15(7.0)
	가족같이 지냄(여러가지 문제를 상의)	2(0.9)
	계	214(100.0)

이웃 관계 형성의 동기(표 5)는 로비, 계단 등에서 마주쳐서 친해진 경우가 3.08점으로 높았으며, 자녀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2.87점, 나이, 직업이 비슷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2.66점 순으로 나타나 로비, 계단실의 디자인이 이웃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에서 만나서 친해지는 경우는 1.98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재순·곽인숙 (2005)[10]의 연구에서 주민들이 단지내 체육시설이나 유아실 등 커뮤니티 시설에서 친해지는 경우와 주민조직활동을 통해 친해지는 경우가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아파트 주거환경과 달리 주민편의시설이 동일 건물 내에 갖추어져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주거라는 주거환경의 특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5)에서 이웃과의 교류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시간 부족(3.78점),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 부족(3.61점), 공동 편의시설의 부족(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주민들이 공동생활에 있어 공동편의시설, 교류프로그램의 미비 측면도 이유가 되겠지만, 오히려 자신이 원할 때만 교류를 하는 선택적인 사회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이웃관계형성의 동기와 교류 장애 요소

구 분		M (SD)
이웃관계 형성의 동기	로비, 계단에서 친해짐	3.08(1.10)
	자녀를 통해 만남	2.87(1.26)
	나이, 직업이 비슷해서 친해짐	2.66(1.20)
	주민조직활동을 통해 만남	2.36(1.14)
	단지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만남	2.27(1.05)
	이사오기 전부터 교류	2.01(1.08)
	커뮤니티 시설에서 만남	1.98(1.01)
교류 장애 요소	시간 부족	3.78(.94)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부족	3.61(.89)
	공동 편의시설의 부족	3.35(1.00)
	교류프로그램이 부족	3.33(1.02)
	이웃에 대해 폐쇄적인 주택설계	3.25(1.00)
	이웃과의 교제를 위한 장소 부재	3.24(1.05)
	마음이 맞지 않아서	3.04(1.00)

필요한 교류모임의 우선순위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재활용품 교환운동(3.68점),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3.61점), 노인 문화프로그램(3.55점), 단지내 화단 가꾸기(3.49점), 사회봉사활동(3.47점)에서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각종동호회(3.01점), 주민잔치개최(2.88점)에서는 낮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현재 교류모임 구성원이 대부분 직장동료 임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네(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다 외부에서 직장동료 모임 및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개인적인 교류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제공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6. 필요한 교류모임과 이상적인 이웃관계

구 분		M (SD)
필요한 교류 모임 명칭	재활용품 교환운동(헌옷 모으기 등)	3.68(.87)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공부방, 미술교실 등)	3.61(.86)
	노인 문화프로그램(건강댄스, 의료강좌 등)	3.55(.92)
	단지내 화단가꾸기(자기 나무심기, 텃밭 등)	3.49(.92)
	사회봉사활동(지역내 무의탁 노인·소녀 돕기등)	3.47(.91)
	주민취미 프로그램(도서대출실, 취미실 등)	3.36(.96)
	주민운동프로그램(에어로빅, 탁구 등)	3.32(.90)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동체 활동	3.17(.96)
	일반 주민 교양강좌(서예, 단전, 바둑 등)	3.31(.94)
	교육품앗이, 단지 내 전문강사 초빙강좌 등	3.02(.93)
	각종 동호회(등산, 테니스, 영화관람 등)	3.01(.90)
	주민잔치개최 (축제, 노래자랑, 운동회 등)	2.88(.94)

10) 최재순 · 곽인숙(2005),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상복합주거의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 한국주거학회지 16(6).

구 분		M (SD)
이상적인 이웃관계	육아 및 자녀 교육에 도움	3.71(.74)
	범죄예방 및 안전대책을 위해 이웃과 협조	3.67(.74)
	문화, 여가, 취미, 정보를 공유	3.61(.75)
	고립감이 해소 및 소속감, 동질감이 부여	3.60(.78)
	주민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공동관리 가능	3.41(.79)
	이웃간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3.38(.80)
	이웃간 교류 할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 필요	3.35(.87)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사노동을 감소	2.89(.89)

조사대상자들은 필요한 이상적인 이웃의 관계를 '육아 및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3.71점), '범죄예방과 안전대책을 이웃과 협조한다'(3.67점), '문화, 여가 취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3.61점), '이웃과 가까이 지내면 고립감 해소 및 소속감, 동질감이 부여된다'(3.60점) 순으로 요구하였다(표6).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이웃에게서 육아 및 자녀 교육에 협조받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바쁘고 특별하게 이웃을 형성할 마음의 여유나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이웃간에 교류 할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필요'(3.35점)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사노동을 감소한다'(2.89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이 잘 갖추어진 주민 공유공간 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2)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교류모임 특성에 따른 공동체 의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교류모임 특성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 교류모임 필요성, 이상적인 이웃관계 등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교류모임 특성에 따른 공동체 의식

구 분		공동체 의식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	교류모임 필요성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	**	*	
	학력	**	**		
	직업			*	
	월평균소득				
	가족생활주기	*	***	*	
주거 환경 특성	거주지역				
	주택유형		***		***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		
	거주기간		*		
교류모임 특성	교류모임 참여정도	***	***	***	**

주: *p<.05 **p<.01 ***p<.001

연령에 따른 공동체 의식(표 9)을 살펴보면,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P<.01),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P<.01), 교류모임 필요성(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는 50세 이상 집단이 3.72점, 40세-49세 집단이 3.41점, 39세 이하 집단이 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세 이상 집단과 40세 이하 집단간에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에서는 세 집단 모두 3점 이하로 이웃과의 친밀감이 높지는 않았지만, 교류모임 필요성에 있어서는 39세 집단(2.91점)을 제외하고 두 집단은 어느 정도 이웃과의 교류모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웃과 친밀감 정도와 교류모임 필요성 모두 39세 이하 집단과 40세 이상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위의 결과, 전체적으로 50세 이상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주민자치, 사회봉사활동, 반상회 등 교류모임을 통해 이웃과 빈번한 교류를 하기 때문으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아파트 단지)에서의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집단은 이상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생활에서는 시간이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이웃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9. 연령에 따른 공동체 의식

항 목 / 연 령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D)	이웃과의 친밀감정도(D)	교류모임 필요성(D)
39세이하	3.32 (b)	2.28 (b)	2.91 (b)
40세-49세	3.41 (b)	2.52 (a)	3.10 (a)
50세이상	3.72 (a)	2.61 (a)	3.12 (a)
F값	6.69**	5.53**	3.62*

주: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만 정리

(표 10)에서, 공동체 의식의 4개 하위척도 중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P<.01),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P<.01)는 학력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삶의 관심 정도에서는 대졸이상 집단(3.37점)보다 고졸이하 집단(3.63점)이 공동체 의식이 높았으며,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에 있어서도 고졸이하 집단(2.63점)이 높았다.

표 10. 학력에 따른 공동체 의식

항 목 / 학 력	공동체 삶의 관심 정도	이웃과의 친밀감정도
고졸이하	3.63	2.63
대졸이상	3.37	2.39
t값	2.85**	2.73**

주: (1) *p<.05 **p<.01 ***p<.001
(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만 정리

직업에 따른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교류모임의 필요성(P<.05)에서만 나타났다(표 11). 자유업·기능직·노무직 집단이 3.20점, 상공자영·판매서비스직 집단이 3.12점, 전문기술·경영관리직 집단이 3.05점, 전업주부가 3.04점, 사무직 집단이 2.79점 순으로 교류모임의 필요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무직에 있는 집단이 다른 직업 종사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직업에 따른 공동체 의식

항 목 / 직업	교류모임의 필요성(D)
전문기술, 경영관리직	3.05 (a)
사무직	2.79 (b)
상공자영, 판매서비스직	3.12 (a)
자유업, 기능직, 노무직	3.20 (a)
전업주부	3.04 (a)
F값	3.36*

주: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만 정리

(표 12)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면,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P<.05),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P<.001), 교류모임의 필요성(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와 교류모임 필요성에서는 가족축소기에 있는 그룹은 각각 3.59점, 3.13점, 가족형성기에 있는 그룹은 각각 3.33점, 2.9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집단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에 있어서도 가족축소기(2.57점), 자녀교육기(2.55점), 가족형성기(2.17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이 주민잔치, 동호회, 주민조직활동 등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더 지향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이 자녀들이 출가해서 없는 빈 둥우리 시기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과의 교류를 많이 하는 시기로 판단된다.

표 1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공동체 의식

항 목 / 가족생활주기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D)	이웃과의 친밀감정도(D)	교류모임 필요성(D)
가족형성기	3.33 (b)	2.17 (b)	2.90 (b)
자녀교육기	3.39 (ab)	2.55 (a)	3.04 (ab)
가족축소기	3.59 (a)	2.57 (a)	3.13 (a)
F값	3.56*	9.17***	3.32*

주: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만 정리

주택유형에 따른 공동체 의식(표 13)은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에서 P<.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2.72점)가 연립·다세대 주택(2.59점) 및 고층아파트(2.32점)보다 더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가 높았으며,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단독주택(3.66점), 연립·다세대 주택(3.51점), 고층아파트(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사는 전통적인 이웃관계가 다른 주거 유형보다 단독주택에 많이 잔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집단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거주자 집단과 고층아파트에 사는 거주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13. 주거유형에 따른 공동체 의식

항 목 / 주택유형	이웃과의 친밀감정도(D)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D)
단독주택	2.72 (a)	3.66 (b)
연립·다세대	2.59 (a)	3.51 (b)
고층아파트	2.32 (b)	3.31 (a)
F값	7.98***	7.27***

주: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만 정리

주택규모, 거주기간에 따른 공동체 의식(표 14)은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전반적으로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는 3점 이하의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도시인들이 이웃에 대해 관심을 쏟고, 동네(아파트 단지)일에 참여할 만큼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는 오늘날의 주거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0평 이상의 집단이 2.60점, 30-40평 미만 집단이 2.49점, 20-30평 미만의 집단이 2.48점, 7-20평 미만 집단이 2.0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평 이상의 평형에 거주하는 집단과 20평 이하의 평형에 속하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표 14. 주택규모, 거주기간에 따른 공동체 의식

항 목 / 주택규모		이웃과의 친밀감정도(D)
주택규모	7-20평미만	2.09 (b)
	20-30평미만	2.48 (a)
	30-40평미만	2.49 (a)
	40평이상	2.60 (a)
	F값	3.57*
거주기간	3년미만	2.35 (b)
	3이상-5년미만	2.34 (b)
	5년이상-10년미만	2.57 (ab)
	10년이상	2.65 (a)
	F값	3.33*

주: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만 정리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의 집단이 이웃과 친밀감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5점). 반면에, 5년 미만 집단이 2.34점으로 가장 낮았다. 10년 이상 거주하는 집단과 5년 미만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집단은 한 동네(아파트 단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네(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 자발적으로 이웃과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3년 미만의 집단은 잦은 주거이동으로 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는, 개인 의지에 따라 이웃주민들과 오랜 기간 동안에 빈번한 상호작용을 할 때, 이웃간의 친밀감이 증가되며, 주민들 간의 접촉은 공동체 의식에 도움이 된다는 우룡(1995)[11]의 연구결과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5)를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의 하위척도 모두에서 교류모임 참여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모임의 참여정도가 높은 집단이 전반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관심이 많았으며(3.69점), 다른 집단 보다 더 교류모임의 필요성(3.45점)을 느꼈다.

또한, 상 집단이 2.81점, 중 집단이 2.45점, 하 집단이 2.15점 순으로 이웃과의 친밀감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류모임을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교류 모임을 통해 이웃과 상호접촉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적인 이웃관계의 필요성에서는 상 집단이 3.57점, 중 집단이 3.44점, 하 집단 3.28점 순으로 낮아졌으며, 상 집단과 하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15. 교류모임 참여정도에 따른 공동체의식

항목 / 교류모임 참여정도	공동체 삶의 관심정도(D)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D)	교류모임 필요성(D)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D)
상	3.69 (a)	2.81 (a)	3.45 (a)	3.57 (a)
중	3.46 (b)	2.45 (a)	3.04 (b)	3.44 (ab)
하	3.22 (c)	2.15 (b)	2.65 (c)	3.28 (b)
F값	9.87***	21.75***	54.13***	5.51**

주: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만 정리

11) 우룡(1995), 개인의 의지와 지역공동체 의식간의 관계 분석, 지역사회개발학회지 제5권.

3)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반적 특성 6개, 주거환경 특성 5개, 교류모임 특성 1개의 변수들에 대해 Pearson 단순상관분석을 하였다.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생략),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어 모든 변인을 투입하여 중회귀 분석[12]을 하였다.

분석결과, 투입된 12개의 변인 중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두는 변인은 주택형태(P<.05), 교류 모임 참여정도(P<.001)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층아파트에 사는 경우보다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경우(β=.14)가 공동체 의식이 높았으며, 교류모임에 많이 참여할수록(β=.56)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모임과 더불어 주택유형을 고밀도 고층 아파트 위주로 계획되는 것보다 저밀도 저층 연립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6.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주거환경 생활특성, 교류모임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

변 인		공동체 의식		
		B	β	t
성별(기준 :남성)		-2.78	-.08	-1.07
연령		-.05	-.03	-.24
학력(기준:고졸기준)		.85	.02	.29
직업 (기준:전문 기술,경영 관리직)	사무직	.55	.01	.18
	상공자영 외	-.63	-.01	-.18
	자유업 외	-.23	-.01	-.06
	전업주부	.1.28	.03	.38
월평균가계소득		-.01	-.01	-.15
가족생활주기 (기준:가족형성기)	자녀교육기	4.69	.12	1.33
	가족축소기	2.48	.07	.49
거주지역(기준:서울 외)		1.35	.04	.61
주택유형 (기준:고층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5.60	.14	2.26*
	단독주택	4.06	.08	1.09
주택소유형태(기준:세입)		-2.37	-.06	-.95
주택규모		.07	.02	.18
거주기간		.03	.09	1.21
교류모임 참여정도		2.35	.56	8.99***
상수		100.10***		
F값		6.96***		
Adj. - R^2		.34		

*p<.05 **p<.01 ***p<.001

5. 코하우징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조사대상자의 코하우징 보급 및 입주의사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 '더불어 사는 코하우징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코하우징 단지가 생긴다면 입주해 살고 싶다'라는 두 항목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코하우징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코하우징 보급의사 및 입주의사는 각각 3.43점, 3.30점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견해를 합친 비율에서는 응답자의 48.1%가 '우리나라에 코하우징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의사를 나타내었다. 또한, '코하우징이 생기면 입주 하겠느냐'에 대한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39.7%가 입주하겠다고 하여 코하우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 결과를 볼 때, '더불어 사는 코하우징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과 '코하우징이 생기면 입주해 살겠다'라고 하는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상적인 주거형태와 현실간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코하우징의 이상적인 면을 알고 있지만, 실제 코하우징이 생겨서 입주한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의 공동체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조사대상자의 코하우징 보급, 입주에 대한 의견

구 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코하우징의 보급 의사	8 (3.7)	15 (7.0)	88 (41.1)	82 (38.3)	21 (9.8)	3.43 (0.90)
코하우징의 입주 의사	10 (4.7)	22 (10.3)	97 (45.3)	63 (29.4)	22 (10.3)	3.30 (0.95)

구체적으로 코하우징 보급의사, 입주의사에서의 영향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특성, 사회활동특성, 공동체 의식에 대한 Pearson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생략). 그 결과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어 모든 변인을 투입하여 중회귀분석[13]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코하우징 보급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β=.18), 학력(β=.17), 월평균가계소득(β=-.20), 공동체 의식(β=.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9%였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코하우징의 보급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코하우징 보급 의사,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주거환경 생활특성, 교류모임 특성, 공동체 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코하우징 보급의사			코하우징 입주의사		
		B	β	t	B	β	t
성별(기준 :남성)		.33	.18	2.14*	.23	.19	1.415
연령		.01	.03	.21	.02	.15	1.103
학력(기준:고졸기준)		.41	.17	2.35*	-.07	-.03	-.364
직업 (기준:전문 기술외)	사무직	-.06	-.02	-.20	-.01	-.01	-.07
	상공자영 외	-.06	-.02	-.27	-.38	-.15	-1.74
	자유업 외	-.28	-.11	-1.23	-.23	-.09	-.97
	전업주부	-.25	-.10	-1.23	-.16	-.06	-.74
월평균가계소득		-.01	-.20	-2.23*	-.01	-.17	-1.92
가족생활주기 (가족형성기)	자녀교육기	-.08	-.04	-.38	-.41	-.20	-1.85
	가족축소기	.21	.11	.69	-.39	-.20	-1.24
거주지역(기준:서울 외)		.12	.07	.93	-.08	-.04	-.61
주택형태 (고층아파트)	연립, 다세대	.10	.05	.69	.15	.07	.95
	단독주택	.20	.08	.92	.15	.06	.65
주택소유형태(기준:세입)		.11	.06	.71	.33	.16	2.14*
주택규모		-.01	-.10	-1.19	-.01	-.08	-.92
거주기간		.01	-.13	-1.46	.00	-.03	-.37
교류모임 참여정도		-.01	-.04	-.41	-.01	-.05	-.63
공동체 의식		.02	.33	3.79***	.02	.40	4.66***
상수		1.38			.68		
F값		2.05**			2.53***		
Adj. - R^2		.09			.12		

*p<.05 **p<.01 ***p<.001

12) 중회귀 분석은 공동체 의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12개 변수 모두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한 12개 변수 중 범주형 척도를 사용한 성별, 학력, 직업, 가족생활주기, 거주지역,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등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연속변수인 연령, 월평균가계소득, 주택규모, 거주기간은 점수가 많을수록 측정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13) 중회귀 분석은 코하우징 보급의사 및 입주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공동체 의식을 포함한 13개 변수 모두를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중 범주화 척도로 된 성별, 학력, 직업, 가족생활주기, 거주지역,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등은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연속변수인 연령, 월평균가계소득, 주택규모, 거주기간, 교류모임 참여정도, 공동체 의식은 점수가 많을수록 측정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위의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코하우징 보급에 있어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코하우징이 아동에게 좋은 환경, 공동 이해관계, 공동육아·공동 식사 등 가사 노동의 단순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소득이 적은 집단은 공동으로 식사, 육아, 김장, 청소 등을 분담하여 노동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큰 자본이 필요한 기계, 시설 등을 공동 투자하여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코하우징[14]생활이 더욱 보급의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코하우징이 보급 될 경우, 그들의 경제적 조건과 가족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코하우징의 구성원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표 18)에서 살펴보면, 코하우징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유형태(β=.16), 공동체 의식(β=.4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2%였다. 즉, 임차보다 자가의 경우에,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코하우징에 입주할 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교류모임의 참여정도는 코하우징 보급의사와 입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교류모임의 참여정도가 낮을수록 코하우징 보급의사와 입주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코하우징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일반 아파트 주거단지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되었기 때문으로 나온 결과로 사료된다. 즉, 교류모임의 참여가 높은 집단의 경우는 화단 가꾸기, 주민교류프로그램 등을 현재 살고 있는 주거단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코하우징에 입주해서 까지 이웃과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코하우징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코하우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기존 주거단지와는 다른 개념을 가진 의도화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특성, 주거환경특성, 교류모임 특성, 공동체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 변인들이 코하우징 선호도(보급의사, 입주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교류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는 낮았지만, 건강 관련 모임, 문화·여가 및 취미활동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모임의 구성원은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에 대해 관심은 많았으나, 실제 동네 및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속감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은 재활용품 교환운동,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으며, 자녀교육, 범죄예방, 고립감 해소 등에 있어 이웃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다. 또한, 교류모임에 많이 참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공동체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넷째, 연령이 높은 집단, 단독주택에 사는 집단,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집단이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이웃과의 친밀감이 높았으며,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 고졸이하 집단, 교류모임이 많은 집단 일수록 공동체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다섯째, 조사대상자들의 코하우징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였으나, '코하우징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코하우징이 생기면 입주해 살겠다'는 행동은 차이가 있었다.

코하우징 선호도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코하우징 보급의사가 높았다. 또한, 임차보다 자가의 경우에,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코하우징 입주 의사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코하우징 보급과 입주라는 생각과 행동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면, 아직까지는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이 노후에 귀촌해서 이웃과 교류하고,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코하우징 보급되기 위해서는 먼저 코하우징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왜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주거환경에서 자연발생적인 공동생활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이해관계(공동육아, 친환경적인 삶, 유기농법 등)를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 속에서 의무적 참여와 선택적 참여를 적절히 조화하여 공동체 생활을 유형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동체라는 것은 개개인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모임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제는 주택이 더 이상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어, 가족과 이웃의 생활을 담는 진정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상희(2001), 거주자 참가형 주택개발을 위한 주의식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2).
2. 류경희(2001),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 대한가정학회 39(3).
3. 신명호 외(2000),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연구 제6호.
4. 신용재(2001), Cohousing에서 추구하는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1).
5. 이경희·채혜원(2004), 초고층 건물거주자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근린활동, 한국주거학회 22(3).
6. 이경희(2000), 공동주택 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논문집, 38(2).
7. 이옥경(2001), 한국의 노인용 코하우징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8. 우룡(1995), 개인의 의지와 지역공동체 의식간의 관계 분석, 지역사회개발학회지 제5권.
9. 윤정숙(1997), 주거학개설, 문운당.
10. 한주희(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한민정(2005), 코하우징 개념을 적용한 도시근교 주거단지의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12. 홍서정(2005),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 계획,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신용재(2001), Cohousing에서 추구하는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1).
14. 통계청 http://www.nso.go.kr
15. 최정신(2004),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 주거대안 -코하우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2(1).
16. 최재순·곽인숙(2005),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상복합 주거의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한국주거학회지 16(6)

14) 최정신(2004),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 주거대안
-코하우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2(1).